경전 번역 판본간 비교·대조 필수

전자불전연, 불전번역 주제 학술대회
불교학 연구회서도 11월 8일 발표회
주석서 있으면 인용경구·주석내용 참조
조선시대 언해본의 띄어읽기·현토활용을

수행과 포교의 측면에서 불교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불교경전 번역은 번역자에 따른 해석의 차이, 범어 한문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전 내용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헌학을 기반으로 불교 경전 번역과 해석 작업이 이루어진 유럽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1998년 <한글대장경>이 완역되면서부터 한국 불교학계의 경전 번역 사업은 일정부분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그러나 경전 번역 전문가들은 현행 <한글대장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번역오류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와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가 불교경전 번역의 문제를 주제로 학술 발표대회를 열어, 경전 번역에 대한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전자불전연구소는 10월 24일 동국대에서 '불전번역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홍영식(동국대) 교수의 '한글불교전서 전산화에 따른 누락문자처리와 활용방안', 김성철(동국대) 교수의 '<중론> Sloka의 제작방식과 번역', 전재성(한국빨리성전협회) 박사의 '세계의 현존하는 대장경의 문제점과 일상용어로의 번역', 허일범(진각대) 교수의 '티베트장경 번역의 문제점', 묘주 스님(동국대)의 '한역경전 번역의 개선방향' 등 5가지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불전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판본간 대조작업과 번역 인력 양성이 공통적 과제로 지적됐다. 허일범 교수는 "많은 종류의 이판(異版)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판본간 대조작업은 번역의 기본이 된다"며 "주석서가 있는 경우에는 경구의 인용과 주석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며 비교·대조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번역 인력 양성에 관해서도 허 교수는 "단순히 한가지 언어 해독 능력뿐 아니라 각 분야의 교리나 수행법 등에 정통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묘주 스님은 한역(漢譯) 경전을 번역하는데 있어 범본, 팔리본, 서장본, 각 이판본의 대조 작업 외에도 구결본(口訣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띄어읽기와 현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번역 내용이 달라지는데, 구결본에는 삼국·통일신라·고려 시대의 기라성같은 고승들의 경안(經眼)이 담겨있다"며 "조선시대 언해본 간행은 전래된 구결본을 참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해본의 띄어읽기와 현토를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묘주스님은 기존 한역 경전 번역본에서 △인도의 종교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번역 △문맥상의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 △불교 교리에 부합되게 번역 △관용음이라 해도 무조건 답습하지 말고 시정이 필요한 것은 고쳐 번역 △만연체 문장은 과감하게 다듬어 번역 △부처님께서 대보살을 상대로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종결어에 대한 논의 필요 등 6가지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관용어의 답습 가운데 흔히 사용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는 현재의 범음 표기에도 맞지 않고, 발음을 편하게 하는 음편현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자 원음대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나 오늘날의 범음표기 '아눗따(타)라삼약상보디'로 읽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전재성 박사는 불교영어의 과감한 참조를 주장하며 "팔리어나 범어는 모두 영어권의 조상언어에 가깝기 때문에 서구 언어로의 번역이 적어도 언어학적으로는 가장 원의에 충실하게 번역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11월 8일 동국대에서 2003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불전번역 문제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목조문화재 '흰개미 비상'

선운사 등 20%가 피해, 해인사 경판고서도 발견
문화재청, 매년 7억 투입 훈증·토양처리 방제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점검조사, 방제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이를 위한 예산 7억여 원을 매년 확보해 건물에 대한 훈증처리와 토양처리 등 흰개미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월 21일 밝혔다.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의 피해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시돼, 문화재청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140건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점검조사를 마쳤다. 이 조사에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가운데 18~20%가 흰개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흰개미의 피해에서 사찰도 예외일 수는 없어, 199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방제작업을 실시한 98동의 문화재 가운데 67동(68%)이 사찰 건물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창 선운사, 여수 흥국사, 순천 정혜사 대웅전 등을 들 수 있다. 또 지난 1998년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된 해인사 응향각에서도 흰개미 피해가 발견된 바 있다.

흰개미 방제대책으로는 훈증(燻蒸)처리, 토양처리, 목재방충방부처리, 군체제거시스템 등 4가지가 있다. 흰개미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과 처리효과는 상이하다. 건물 전체를 피복해 연기나 독가스 등으로 살균하는 훈증처리는 흰개미가 목재 내에 침투한 경우 사용되며, 효과가 1개월 정도 지속된다. 건물주변 토양 속에 살충제를 투입해 차단막을 형성하는 토양처리는 5~6년, 보수공사 시 방충방부처리된 목재를 사용하는 방법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10~30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창녕 관룡사 대웅전의 경우 목재방충방부처리 방법을 사용해 보수공사를 마쳤다.

◇흰개미 피해로 기둥 일부가 파손된 불국사 건물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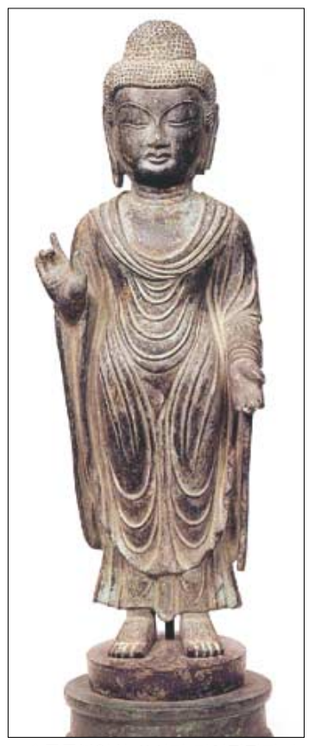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이규식 연구원은 "흰개미가 일제시대 철도 침목에 묻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환경이 흰개미 서식에 적당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있고, 대만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 흰개미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예전부터 국내에 흰개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흰개미의 근본적인 방제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흰개미가 발견되는 장소에 유인용 목재(약제먹이)를 설치해, 이를 먹은 흰개미의 성장을 막아 흰개미군 전체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불 상(12)

긴장감 넘치는 탄력성

우리나라 불상의 흐름을 사람의 일생에 비유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불상이 유년기에 해당한다면,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은 청년기이다. 고려시대의 불상이 장년기라면, 조선시대의 불상은 노년기이다. 삼국시대에는 아기부처가 등장하고 미소년상의 불상이 나타난다. 친근감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앳된 모습의 부처를 탄생시킨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바늘로 찌르면 펑하고 터질 것 같은 긴장감마저 도는 팽팽한 몸매가 조형을 지배한다. 고려시대에는 화려하면서도 장식 가운데 편안함이 깃들어져 있어 무언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향유하는 장년층이 연상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시대라 그런지 유난히 고개를 숙이는 불상이 적지 않게 보여 노인의 모습이 깃들어져 있다. 그렇지만 역경을 꿋꿋하게 헤쳐 나가는 강한 생명력이 함께 분출된 시기도 조선시대이다. 이러한 비유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거칠게 그 흐름을 짚은 것이고, 실제 각 시기마다 전개된 변화상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



◇금동불입상 쓰시마 가이진진자 소장. 높이 38.2cm. 팽팽한 탄력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통일신라 불상 가운데 이러한 일생의 비유에 가장 적절한 유물이 일본 쓰시마(對馬島) 가이진진자(海神神社)에 소장된 금동불입상이다. 이 불상은 경덕왕 때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 석굴암조각이 완성되고 성덕대왕의 십이지신상, 굴불사지 사방불 등 명품이 줄을 이었다. 이 불상의 얼굴은 신라 불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스투파 모양을 닮은 높은 육계에 지그시 눈을 감은 듯한 표정에는 곡선미의 눈매가 시원하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불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부분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몸매다. 탄력적인 몸매가 몸에 짝 달라붙은 얇은 가사 속에 드러나 있다. 그야말로 젊은 청년기의 물오른 몸매에 긴장감마저 느껴진다. 이처럼 긴장감 넘치는 탄력성이 통일신라 절정기 조각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불상에서 보이는 관능적인 표현의 뿌리를 찾자면, 인도의 불상에까지 닿아있다. 인도 고유의 육체적 관능미가 강조된 마투라 불상이 그것이다. 마투라의 전통은 굽타시대에 와서도 몸에 짝 달라붙은 얇은 옷과 규칙적으로 물결치는 옷주름을 통해서 정형화된다. 이 양식은 중국에 전해져 곡양 수덕사(修德寺) 백대리석불입상(영국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소장)처럼 당나라 때에 와서는 풍염한 몸매로 나타난다. 뚱뚱한 양귀비가 연상되는 관능미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일신라에 전해진 인도의 육감적인 양식은 관능적인 몸매에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부여된다. 불상의 관능적인 표현은 인도의 굽타시대 불상이나 중국의 당나라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이들 나라의 불상보다 훨씬 긴장되고 탄력적인 조형에서 통일신라만의 독특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가이진진자 소장 금동불입상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앳되고 귀여운 정서까지 간직하고 있어 신라 불로서의 매력이 한층 돋보인다.

팽팽하고 관능적 … 통일신라 조각의 특징
印 굽타시대 양식 당나라 거쳐 국내 유입

■경주대 문화재학부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 산 정 사

茶의 생활화
張園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00여종의 중국 대만차
모든 중국, 대만 다구
기타 차에 관한 일체
• 대만 도작방(陶作坊) 한국 총대리점
• 총판 및 대리점 경영자 모집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1동 305-30
051)866-8966~7 / Fax : 051)868-8968

"부처님 등불"
가나공예양초
기원 전기촛불 수공예 양초 (색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빨강 외 다수)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 원하시는 모양과 규격에 맞추어 하실경우 별도 비용 추가 됩니다.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옥색) 소원성취(핑랑) 신혼기원(자주)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및 취급점 상담 |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81-119번지 사무실 02)996-8830 가나 공예양초